송강호·박찬욱 필모그래피

송강호

1996년 ▶ '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'로 스크린 데뷔

2000년 ▶ '공동경비구역 JSA'

2002년 ▶ '복수는 나의 것'

2006년 ▶ '괴물' 칸 영화제 감독주간

2009년 ▶ '박쥐' 칸 영화제 경쟁부문 (심사위원상)

2019년 ▶ '기생충' 칸 영화제 경쟁부문 (황금종려상) 미국배우조합상(SAG) 앙상블상

2021년 ▶ '비상선언' 칸 영화제 경쟁부문·경쟁부문 심사위원 위촉

2022년 ▶ '브로커' 칸 영화제 한국 첫 남우주연상

박찬욱

1992년 ▶ '달은…해가 꾸는 꿈'으로 데뷔

2000년 ▶ '공동경비구역 JSA'

2002년 ▶ '복수는 나의 것'

2003년 ▶ '올드보이' 칸 영화제 심사위원대상

2005년 ▶ '친절한 금자씨' 베니스영화제 경쟁부문

2009년 ▶ '박쥐'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상

2016년 ▶ '아가씨' 영국 아카데미 LA비평가협회 외국어영화상

2022년 ▶ '헤어질 결심' 칸 영화제 감독상

• 만 19세부터 구입할 수 있고 당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• 1인당 1회 1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

Lotto 6/45 1017 회 당첨번호 (추첨일 : 2022년 05월 28일)

1등 당첨번호						2등 보너스 번호
12	18	22	23	30	34	32

1등 총 당첨금 2,246,623,793

*1등 총 당첨금은 1등에 당첨된 총 당첨게임 기준이며, 당첨 게임수가 복수인 경우 균등 배분됩니다. 총 당첨금은 총 판매액의 50% 이상입니다.

등위	당첨게임 수		당첨금(원)	당첨금 내역
1등	6개 숫자일치	7	3,517,684,822 원	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%
2등	5개 숫자일치 + 2등 보너스일치	70	58,628,081 원	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.5%
3등	5개 숫자일치	2,596	1,580,881 원	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.5%
4등	4개 숫자일치	133,621	50,000 원	50,000원
5등	3개 숫자일치	2,235,724	5,000 원	5,000원

*상기 당첨금은 1게임당 당첨금액 기준입니다. (세금 공제 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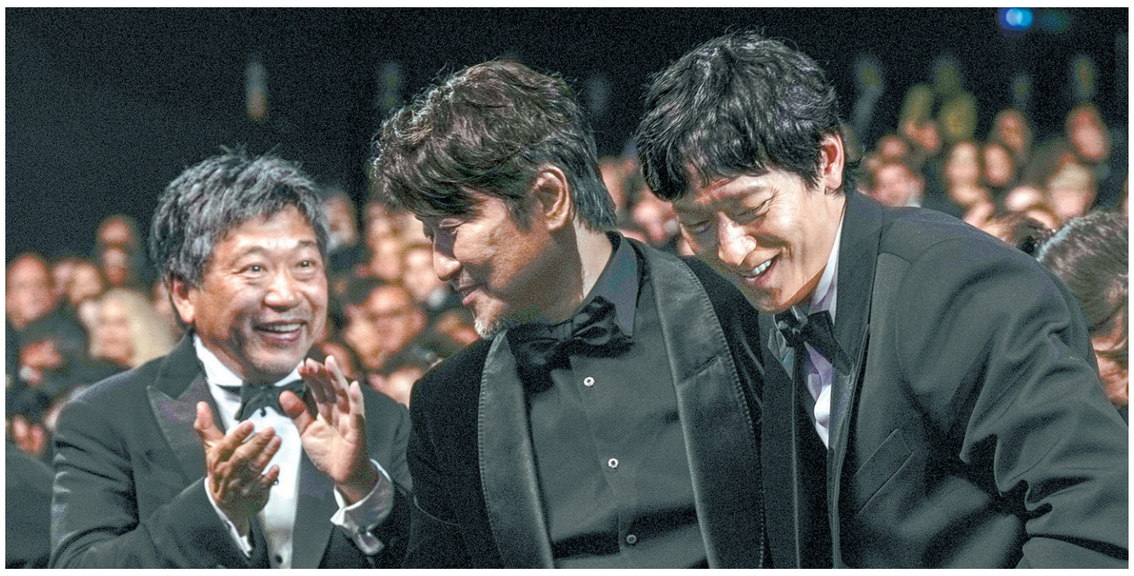
• 동행복권 콜센터 : 지역없이 1588-6450 •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: www.dhlottery.co.kr
당첨금 지급기간 :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 부터 1년까지

복권 구입시 유의사항 • 복권은 1인당 1회 10만원까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• 만 19세부터 구입할 수 있고 당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• 복권은 소액으로 건전하게 즐기세요! 동행클린센터 080-800-0501 www.clean.dhlottery.co.kr

이승미 기자의 칸 리포트 | 한국영화 2관왕, 뜨거웠던 시상식 현장

"설마했던 동시 수상이…" 프레스룸 잔칫집

두 영화 폐막식 참석 소식에 한국취재진들 기대감 속 긴장
잇단 호명 "해냈다" 환호·박수
송강호·박 감독 프레스룸 오자 다시 박수 세례…최고의 하루



29일(한국시간) 프랑스 칸 팔레 드 페스티벌에서 열린 칸 국제영화제 폐막식에서 '브로커' 연출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남우주연상으로 호명된 배우 송강호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는 모습. 영화에서 호흡을 맞춘 강동원도 축하했다. 감독상을 수상하기 위해 무대로 향하는 박찬욱 감독(위부터 시계 방향으로). 칸(프랑스) | AP·뉴시스

역대 한국영화 수상 내역

- 2002년 '취하선' 장편 경쟁부문 초청· 감독상(임권택) 수상
- 2004년 '올드보이' 장편 경쟁부문 초청· 심사위원대상(박찬욱) 수상
- 2007년 '밀양' 장편 경쟁부문 초청·여우주연상(전도연) 수상
- 2009년 '박쥐' 장편 경쟁부문 초청·심사위원상(박찬욱) 수상
- 2010년 '시' 장편 경쟁부문 초청·각본상(이창동) 수상
- 2011년 '아리랑' 주목할만한 시선 초청· 주목할 만한 시선상(김기덕) 수상
- 2019년 '기생충' 장편 경쟁부문 초청· 황금종려상(봉준호) 수상

칸 국제영화제 폐막식이 열린 29일 오전 3시30분(이하 한국시간) 칸 팔레 데 페스티벌에 마련된 프레스룸은 마치 한국 취재진 전용 기자실 같았다. 그만큼 박찬욱 감독의 '헤어질 결심'과 송강호 주연 '브로커'의 경쟁부분 수상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. 기대감은 전날인 28일 오후 영화제 측이 두 작품의 주역들에게 폐막식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잇달아 알려지면서 더욱 치솟았다.

●기대가 확신으로 바뀌던 순간

'헤어질 결심'의 24일 경쟁부문 공식 상영과 이튿날 기자회견 등 공식 일정을 마친 뒤 먼저 칸을 떠난 주연 탕웨이를 제외하고 박찬욱 감독과 또 다른 주연 박해일이 폐막식에 참석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.

칸 국제영화제 측은 수상이 확실시되는 영화의 제작진에게 폐막식 참석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현지 취재진 사이에서는 '헤어질 결심'과 함께 이번 영화제 경쟁부문에 올라 수상 여부로 관심을 끈 '브로커' 제작진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려 움직였다. 결국 '헤어질 결심' 팀이 참석한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수상 기대감이 커졌다.

이즈음부터 두 편의 한국영화의 동시 수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취재진이 '브로커'에 관한 아쉬움을 나누고 있을 때쯤 '브로커' 제작진도 폐막식 초청을 받았다는 소식이 날아왔다. "두 편 중 한 작품에서 연기상 수상자가 나오는 게 아니냐"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이어졌다.

폐막식장인 뤼미에르 대극장에 입장할 수 없는 취재진은 기대감 속에서 프레스룸의 생중계 모니터 앞에 일찍부터 자리를 잡았다. 하지만 끝까지 확신할 순 없었다. 마침내 폐막식 레드카펫에 박찬욱 감독·박해일에 이어 송강호를 비롯한 '브로커' 팀이 모습을 드러내자 취재진의 초조한 기대감은 수상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었다.

●"함께 받아 더욱 행복"

폐막식 및 시상식이 끝나고 한 시간 남짓 시간이 지난 뒤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은 박 감독과 송강호는 트로피를 들고 프레스룸을 찾았다. 시상 무대 위에서 못 다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였다.

두 사람이 등장하자 프레룸은 환호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. 한국 취재진뿐만 아니라 외신기자들도 그들의 모습을 더욱 가까이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.

박 감독은 앞서 "'공동경비구역 JSA'를 비롯해 2009년 심사위원상 수상작인 '박쥐' 등을 함께 했던 송강호와 수상이 더욱 기쁘다며 "칸은 한 영화로 두 가지 상을 주지 않으니 같은 영화로 왔다면 같이 받을 수 없었을 텐데, 이렇게 다른 영화로 오게 되니 상도 같이 받아서 더 좋다"고 말했다.

(칸)프랑스 | smlee@donga.com

송강호 "날 보며 뛰어오던 박 감독 눈빛, 잊을 수 없다"

박 감독 "나도 모르게 복도 건너 뛰어가"
"13년만에 재회? 송강호 거절만 말아라"

한국영화를 대표하는 감독과 배우는 '영광의 순간'마다 함께 해왔다.

제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각각 남우주연상과 감독상을 받으며 한국영화의 역사를 새롭게 쓴 송강호와 박찬욱 감독. 이들은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존재 그 이상이었다. 29일 오전 3시30분(한국시간) 열린 이번 영화제 폐막식에서 남우주연상 수상자로 송강호가 호명되자 가장 먼저 뛰어와 그를 얼싸안은 사람도 박찬욱 감독이었다. 박 감독의 수상을 "남다른 감정"으로 축하해준 이 역시 송강호이다.

두 사람의 인연은 이미 2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. 특히 칸 국제영화에서 함께 빛나는 성과를 일궈왔다는 점에서 이번 동시 수상은 더욱 의미를 더한다.

두 사람은 2000년 '공동경비구역 JSA'부터 함께 작업하며 580만여 관객 흥행작을 탄생시켰다. 2002년 '복수는 나의 것'으로 두 번째 호흡을 맞췄고, 송강호는 '박찬욱의 남자'로 불리기도 했다. 박 감독은 이후 '올드보이'와 '친절한 금자씨'로 이어지는 '복수 3부작'의 첫 작품을 송강호와 함께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과시했다.

2009년 '박쥐'를 통해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. 그동안 박 감독은 2003년 '올드보이'를 통해 칸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받고 해외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. 송강호 역시 '괴물'과 '밀양' 등으로 칸과 깊은 인연을 맺어갔다.

'박쥐' 이후 13년. 칸 무대에서 재회한 두 사람은 '운명의 장난'인 듯, '신의 배려'인 듯, 각각 다른 작품을 통해 나란히 한 무대에 올라 상을 받았다.

시상식 직후 한국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두 사람은 함께였다. 송강호는 "(호명되자)박 감독이 뛰어오시면서 포옹하시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다"며 "박 감독의 눈빛을 보는 순간 너무 좋았고 축하했던 그 순간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"고 말했다. 이에 박 감독은 "저도 모르게 복도를 건너서 뛰어가게 되더라"며 "그동안 많은 좋은 영화에 출연했는데 기다리니 (남우주연상을)수상하는 때가 왔다"고 축하했다.

취재진이 두 사람의 또 다른 재회를 기대하자 박 감독은 "(캐스팅을)거절만 하지 말아 달라"며 너스레를 떨었고, 송강호는 "우리, 작품 한 지 너무 오래됐다. 13년이다"며 '환상의 호흡'을 희망했다.

이정연 기자 annjoy@donga.com

박찬욱 "영화관 지키며 영원히 영화를 지키자"

시상식 수상 소감

박찬욱 감독과 송강호의 수상 소감은 수상의 기쁨만큼이나 한국영화 및 관객들에 대한 애정이 뚝뚝 묻어났다. 두 사람의 재치 넘치고 의미 있는 소감은 더 깊은 인상을 남겼다.

●박찬욱…영화를 향한 무한사랑

"극장에 관객이 발길을 끊는 시대를 겪었지만 우리는 그만큼 극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았다. 이 질병을 이겨낼 희망과 힘을 가진 것처럼, 우리 영화인들도 영화관을 지켜내면서 영화를 영원히 지켜 내리라 믿는다."

●송강호…한국영화에 대한 자부심

"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국민들이 늘 변화하고 발전하고 도전한다. 단 한순간도 나태할 수 없다. 그런 특성이 영상 콘텐츠에서도 드러난다. 지금 우리의 콘텐츠가 눈에 띄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콘텐츠는 늘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."